

2022-05-16 (2022-19호)

5월 16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강달러 쉬어갈까... 외환당국 시장안정 의지 주목

서울, 5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모멘텀 둔화 여부를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65-1,295원이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1,290원대로 급등하며 자체적인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는 듯한 조짐도 보였지만, 때마침 위험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가 주춤해진 탓에 달러/원을 둘러싼 상승 탄성이 조금 둔화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정책 공조 강화 의지가 전해지면서 시장심리가 진정된 영향도 있다.

물론 원화 약세 지속 여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및 미국과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등에 달렸지만, 외환당국 수장의 강력한 시장안정 의지 표명에 따라 달러/원 상승 기대에 따른 환 헤지, 투기수요 증가 등 자기실현적 환율 상승 메커니즘이 무작정 확대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 여지도 있다.

금주에도 이러한 당국 의지가 계속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저점 매수가 붙으며 반등한다면 달러/원의 일방적인 상승세는 한층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핵심 지표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은 변수다.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달러/위안의 추가 상승 여부는 원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다. JP모간은 중국 정부가 최근 가파른 위안화 약세에 대해 침묵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올해 말 달러/위안 전망치를 6.95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중국은 대출우대금리도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중국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평가도 주목된다.

미국도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이 발표되는데 최근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인사들의 발언에도 여전히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한편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한 도발에 따른 양국 대응 전략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실제 북한 도발 여부와 수위는 원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16일(월)

- 금융감독원: 2022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 (07:30)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부총리-한은 총재 간담회 (09: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0:00)
- 한국은행: 뉴스 텍스트를 이용한 경기 예측: 경제 부문별 텍스트 지표의 작성과 활용(12:00)
-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12:00)
- KDI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 (14:30)
- 기획재정부: 부총리 소상공인 현장방문·간담회 (16:00)

5월17일(화)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무회의(주재) (08: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주재) (08:30)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4:00)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주재) (16:00)

5월18일(수)

- 기획재정부: KDI 경제전망(2022. 상반기) (12:00)
- 통계청: 202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2:00)
- 금융감독원: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12:00)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14:0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4:00)
- 금융감독원: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4:00)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7:00)

5월19일(목)

- 금융감독원: '22.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06:00)
-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회의 (08:0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5월호) 발간 (10:00)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 통계청: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 금융감독원: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배포시)

5월20일(금)

- 한국은행: 202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 (08:00)
- 기획재정부: 제1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08:3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 (09:30)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 기획재정부: 제3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0:00)
-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3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5월16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4월		Percent	0.8%
5월16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4월	7.0%	Percent	9.3%
5월16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4월	0.3%	Percent	5.0%
5월16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4월	-6.0%	Percent	-3.5%
5월16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5월	15.50	Index	24.60
5월17일	18:00	유로존	GDP 수정치 YY	1분기	5.0%	Percent	5.0%
5월17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4월	0.7%	Percent	0.5%
5월17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4월	0.4%	Percent	0.9%
5월17일	23:00	미국	기업재고 MM	3월	1.8%	Percent	1.5%
5월17일	23:00	미국	소매재고 (자동차제외)	3월		Percent	2.3%
5월17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5월	76	Index	77
5월18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5월		Index (diffusion)	11
5월18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서비스업지수	5월		Index (diffusion)	8
5월18일	08:50	일본	GDP QQ	1분기	-0.4%	Percent	1.1%
5월18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4월		Percent	1.5%
5월18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3월		Percent	0.3%
5월18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9일주간		Index	358.9
5월18일	21:30	미국	건축허가	4월	1.813M	Number of	1.870M
5월18일	21:30	미국	주택착공	4월	1.783M	Number of	1.793M
5월19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3월		Percent	-9.8%
5월19일	08:50	일본	수출 YY	4월		Percent	14.7%
5월19일	08:50	일본	수입 YY	4월		Percent	31.2%
5월19일	08:50	일본	무역수지	4월		JPY	-414.1B
5월19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3월		EUR	11.43B
5월19일	21:3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9일주간		Person	
5월19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5월	17.2	Index	17.6
5월19일	23:00	미국	기존주택 판매	4월	5.65M	Number of	5.77M
5월20일	08:30	일본	CPI	4월		Percent	1.2%
5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5월		Percent	3.70%
5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5월		Percent	4.60%
5월20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5월		Nat balance	-22.0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16일(월)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모기지은행협회 주최 컨퍼런스 토론 참석 (오후 9시55분)
- 휴장국가: 싱가포르

5월17일(화)

- 호주 중앙은행(RBA), 5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스텐 퓨처 헬스케어 워크포스 서밋서 연설 (오후 10시15분)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소롭티미스트 인터내셔널 주최 행사 연설 (18일 오전 2시)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준 주최 행사 개최사 (18일 오전 3시30분)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NYU 행사서 연설 (18일 오전 7시45분)

5월18일(수)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미국 증권은행 CEO 연합 행사 연설 (19일 오전 5시)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美 경제, 경착륙 향하나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50bp씩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는 금리 대폭 인상이 경제의 경착륙을 불러올지에 대한 힌트를 제시할 전망이다.

17일 발표되는 미국 소매판매는 4월 중 전월비 0.7% 증가해 3월 0.5%보다 가속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을 위축시켰는지 여부는 같은 날로 예정된 월마트, 홈디포, 메이시스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20일 기존주택 판매는 모기지금리 상승이 주택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냉각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연준의 결의는 경착륙 우려를 불러왔다. S&P500지수는 2008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맞고 있는데, 경제가 금리 상승을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는 안도감을 줄 것이다.

### ○ 요동치는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투자자와 관측통들은 모두 가격 급락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두 자릿수 주간 낙폭을 보였고,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에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을 피하면서 다른 암호화폐들도 하락했다.

투자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페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는 자매 코인 루나가 연계된 복잡한 밸런싱 메카니즘이 무너지면서 페그를 깨고 한때 30센트까지 내려갔다.

테더, 바이낸스USD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달러 표시 자산 덕분에 테라USD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상환 요청 쇄도시 이들 코인이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면서 이들의 보유 자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 아시아 경제지표

아시아 각국이 발표할 경제지표에 아시아 자산의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번 주 성장률, 무역,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한다. 이들 지표가 전망을 상회해 세계에서 가장 도비시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더 중립적 스탠스를 검토하게 된다면 최근 약세를 보이는 엔에 호재다.

중국은 산업생산, 소매판매, 주택가격을 발표하고, 벤치마크 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결정한다. 다만 금리는 동결이 예상된다.

호주에서는 임금, 고용지표가 나온다. 중앙은행은 지표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3일 금리를 인상했고,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연말 금리는 3% 부근으로 상승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반하는 신호가 나오면 금리 전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위기의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과 연료 가격 급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여행과 쇼핑에 쓰였을 예금이 봉쇄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코로나 제한조치로 중국 4월 소매판매가 3월 감소폭의 두 배에 가까운 6%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4월 소매판매는 증가가 예상되나, 3월과 같이 휘발유와 식품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 업체 GfK에 따르면 영국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거의 반세기만의 최저치 부근으로 하락했고, 생활비 압박은 4월에도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재량소비재 업종 주가가 올 들어 거의 3분의 1이 하락해 광범위한 주가지수의 낙폭을 앞지른 것도 놀랍지 않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점에 주목해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 러시아-유럽, 가스 공급 줄다리기

유럽 가스시장의 압박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가스프롬 독일 법인과 '야말-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운영사인 유로폴에 제재를 가하면서 가스 가격이 상승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지난 3일 법령을 통해 제재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과 자국 기업들 간의 거래를 금지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가스관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줄어든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은 추가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또 EU 가스 업체들 사이에서는 대금 지불 시한을 앞둔 지난 3월 러시아가 변경한 지불 방법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불 방법 변경이 EU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시장진단) - 한층 매서워진 달러/원 매수세... 외인 헤지수요 더해지나

서울, 5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290원대로 경총 올라 1,3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물가·저성장 우려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원화는 연일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약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날 달러/원 환율은 2009년 7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달러지수가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글로벌 달러 상승률이 9%대인 점을 감안하면, 달러/원 상승세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 연간 달러/원 상승률은 8%대로 달러 보폭과 비슷하다.

그렇다 보니 과거와 달리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다 해도 위기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로선 깊지 않다. 국내 외환시장의 위기 징후로 여겨지는 외화자금시장도 아직 이상 조짐은 없다.

하지만 달러/원 환율이 1,280원대를 넘어 1,300원에 한 발짝 다가서자 달러 매수 강도가 확연히 달라져 시장참가자들의 긴장감은 적지 않다.

### ▲ 한층 매서워진 달러 매수 강도

전날 달러/원 환율은 1,280원대에서 1,290원대로 급등했다.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꽤 강도 높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달러 매수세는 더 집중됐다고 시장참가자들은 전했다.

환율 상승세가 워낙 일방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 암호화폐 급락과 환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다. 전날 외환당국은 이러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 이전과 다른 풀림 양상이 감지됐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달러 매수세를 두고 역내 바빠진 결제수요와 달러/원 최종 저항선인 1,285원선이 뚫리자 숏 커버가 급하게 몰린 영향이 지목됐다.

하지만 이에 더해 외인들의 국내자산 투자에 대한 헤지비율을 높이거나 일부 자산에 대한 언와인딩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장 긴장감을 키웠다.

A 은행 외환딜러는 "국내 자산에 대한 언와인딩 성격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비드가 더 강해졌는데 스태핑으로 처리된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딜러는 "방향성 거래를 하는 역외가 있었고, 헤지와 언와인딩 수요가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C 은행 외환딜러는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환 헤지 관련한 물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역내 수급업체들이 과도하게 헤지 하거나 또는 매수 타이밍을 놓쳐 환율이 특정한 레벨을 뚫었을 때 환율이 과도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는 적다. 하지만 국내 자산에 투자한 외인들이 헤지비

율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데 대한 후폭풍은 사실상 예측하기도 가늠하기도 힘들다.

위의 A 은행 달러는 "외인 증시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외인 동향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5조원 상당은 내다 팔았다.

B은행 달러는 "환율이 1300원을 가더라도 달러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단기적으로 차익실현에 환율이 조금 주춤해질 수는 있더라도 무역적자, 미국 75bp 금리인상 가능성, 아직 위안 약세를 저지하지 않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환율을 위 쪽으로 열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1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84.2	-0.9%	-7.4%	-8.6%	유로	1.0413	-1.3%	-8.4%	-6.9%
100엔 대비	989.6	-1.7%	4.4%	+1.8%	엔	129.21	1.1%	-10.9%	-10.3%
유로 대비	1,331.4	0.7%	1.5%	-1.9%	위안	6.7900	-1.8%	-6.4%	+2.7%
위안 대비	188.33	1.2%	-0.7%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196.66	-2.1%	-11.4%	+18.7%
코스피	2,604.24	-1.5%	-12.5%	+3.6%	나스닥	11,805.00	-2.8%	-24.5%	+21.4%
코스닥	853.08	-3.5%	-17.5%	+6.8%	S&P500	4,023.89	-2.4%	-15.6%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2.42	-2.7%	-17.1%	-4.9%
국고채 3Y	2.911%	-23.5bp	111.3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122%	-24.7bp	111.1bp	+67.6bp	미국채 2Y	2.590%	-14.0bp	186.0bp	+61.0bp
국고채 10Y	3.221%	-21.0bp	97.1bp	+53.7bp	미국채 10Y	2.930%	-21.0bp	14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10.16	-0.4%	46.0%	+55.8%	한국 5Y	44.2bp	3.6bp	22.1bp	-0.7bp
금(현물)	1,811.73	-3.8%	-0.9%	-3.6%	일본 5Y	20.4bp	0.2bp	2.8bp	+2.1bp
TR상품지수	3,860.79	-2.6%	15.6%	+24.6%	중국 5Y	85.2bp	9.0bp	44.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